

# 잡아함 55. 음경(陰經)

날짜: 1월 18th, 2024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645>

## 55. 음경(陰經)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바라내국(波羅捺國)의 선인이 살던 녹야  
원에 계셨다.

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내가 이제 음(陰)과 수음(受陰)을 설명하리라. 어떤 것을 음  
이라 하는가? 존재하는 모든 색(色)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  
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,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 
있는 것이건, 거칠건 미세하건, 아름답건 추하건, 멀리 있는  
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, 그 일체를 통틀어 색음(色陰)이  
라 한다.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수·상·행·식도 또한 그와  
같이 그 일체를 통틀어 수음(受陰)·상음(想陰)·행음(行陰)  
·식음(識陰)이라 하나니, 이것들을 음(陰)이라 하느니라.”

어떤 것을 수음(受陰)이라 하는가? 만일 색에 대해 번뇌[漏]  
가 있어 그것을 취한다면, 그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 
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,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및  
그 밖의 여러 가지 큰 번뇌의 마음을 일으키며, 수·상·행·  
식도 마찬가지니, 이것을 수음(受陰)이라 하느니라.”

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,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  
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.

## jiwol 잡아함경 다시 읽기

---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